

# 여고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강양희<sup>1</sup>, 오은주<sup>1\*</sup>  
<sup>1</sup>창신대학교 간호학과

##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High School Girls

Yang-Hee Kang<sup>1</sup>, Eun-Ju Oh<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B시와 C시 소재 3개 고등학교 재학생 241명이었으며, 자료는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정도는 중간이상이었고 학년, 학업성적, 생활수준, 희망하는 진로, 교우관계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고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to intend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high school girls. Data were collected from 241 high school girls in B and C city and analyzed using SPSS 20.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were above moderate. The levels of sco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school record, economic status, hoping career, and peer relationship.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for improving career decision level of high school girls.

**Keywords** :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Emotional Intelligen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과 계획을 통한 진로결정은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1,2]. 통계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들의 고민은 주로 '공부(35.9%)'와 '직업(22.1%)'에 대한 것이었으며, 13~19세 청소년은 '성적과 적성을 포함한 공부(50.4%)'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 및 정서적 발달에 있어 큰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학업 및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둔

\*Corresponding Author : Eun-Ju Oh(Changshin Univ.)

Tel: +82-55-250-3176 email: eunju218@cs.ac.kr

Received June 3, 2015

Accepted August 6, 2015

Revised (1st July 8, 2015, 2nd July 28, 2015)

Published August 31, 2015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주도적 계획과 결정보다는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다보니 진로 결정에 자신감도 없고 뚜렷한 목적 없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4]. 이처럼 취업과 진학의 기로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 성격,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결정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진로결정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직업세계에서 여성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남자고등학생에 비해 직업의식의 추상적 경향이 높은 여자고등학생들[5]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진로선택은 자신을 둘러싼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자기효능감은 학업상황 뿐만 아니라 진로의 선택과정, 수행, 목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태도성숙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6,7]. 하지만, 학업이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실을 고려해볼 때[4], 학업상황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특수적, 동기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상황에서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을 매개로 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한편, 기존의 학교교육이 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잠재력 개발에 목표를 두었다면, 최근에는 학생의 성공을 예측해 주는 핵심 요인으로 개인의 인지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성, 사회적 능력, 문제해결력 등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감성지능에 주목하고 있다[10].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 및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으로 긍정적 감성지능은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11]. 감성지능은 학습이 가능하여 이를 개발함으로써 유전적인 성향이나 지적인 잠재력에 상관없이 그 능력을 가지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에게 더 높은 경향이 있다[12]. 또한 감성지능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표현을 조절 하며 타인의 관계를 효과적이

고 긍정적으로 맺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감성지능의 변화는 동기적,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의 지식을 행동과 연합시키는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3,14].

이상을 종합해볼 때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이들 관계를 함께 연구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이들 변수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진학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진로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정도와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여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이해하고 진로 지도 및 결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은 B광역시 및 C시에 소재한 3개의 인문계 여자고등학생 25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 25일부터 동년 9월 6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의 학년 부장교사 및 학급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 250명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 자료 9부를 제외한 241명의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로 하였을 때 107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 241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조사에 앞서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범위,

조사 내용 및 결과의 익명성과 사용범위, 모든 자료의 비밀유지,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 2.4 연구도구

### 1) 감성지능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Moon[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인식 8문항, 정서표현 7문항, 감정이입 7문항, 정서조절 15문항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전체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19이었다.

###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8]이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정적 문항 16문항과 부적 문항(역채점 문항) 12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Park[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34이었다.

### 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16]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Ko[17]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 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18개 문항의 Likert 4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다소 그렇지 않다’, 3점: ‘다소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Ko[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84이었다.

##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은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등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s test로 분석하였고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은 정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52.7%로 가장 많았고, 학업 성적은 보통이 54.8%, 나쁜 편이 22.0%를 차지하였다. 가정형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이 80.5%로 가장 많았고, 생활수준은 78.8%가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희망진로는 대학진학이 85.2%로 가장 높았고 교우관계는 좋다가 97.1%를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1)

Variables	Category	N	%
Grade	1st	127	52.7
	2nd	29	12.0
	3rd	85	35.3
School record	very good	9	3.7
	good	34	14.1
	moderate	132	54.8
	bad	53	22.0
	very bad	13	5.4
Forms of family	grand parent& parents	26	10.8
	parents	194	80.5
	single parent	10	4.1
	others	11	4.6
Economic status	high	39	16.2
	middle	190	78.8
	low	12	5.0
Hoping career	enter university	205	85.1
	get a job	18	7.5
	don't know	18	7.5
Peer relationship	good	234	97.1
	bad	6	2.9

###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정도

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01±.45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 감정표현 (3.912±.655), 자기노력(3.793±.659), 감정이입 (3.788±.879), 감정인식(3.708±.609), 자기조절 (3.415±.623) 순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70 ±.412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자신감이 3.247±.740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조절 3.206±.505, 과제난이도 2.793±.537 순이었다.

진로결정 수준 정도는2.382±.45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n=241)

Variables	Number	M±SD
<b>Emotional Intelligence</b>	22	3.701±.459
Emotional Expression	5	3.912±.656
Emotional Empathy	4	3.788±.879
Emotional Perception	4	3.709±.610
Self Control	6	3.416±.624
Self Effort	3	3.794±.660
<b>Academic Self-Efficacy</b>	28	3.076±.443
Task difficulty preference	10	2.808±.642
Self control efficacy	10	3.207±.505
Self- confidence	8	3.248±.740
<b>Career Decision Level</b>	18	2.693±.574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정도는 가정의 생활수준(F=3.971, p=.020),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F=5.356, p=.005), 교우관계(t=2.535, p=.0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 한 결과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희망진로를 ‘대학진학’과 ‘취업’을 한다는 집단이 ‘모르겠다’는 집단보다 감성지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는 학년(F=4.439, p=.013), 학업성적(F=12.311, p=.000), 생활수준(F=3.659, p=.0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분석 한 결과 학년에서는 ‘2학년’이 ‘1, 3학년’ 보다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매우 좋은 편’, ‘좋은 편’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정도는 학년(F=10.397, p=.000), 희망진로(F=7.16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 한 결과 학년에서는 3학년이 1,2학년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1)

Variables	Category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Grade	1st <sup>a</sup>	3.672±.504	1.082 (0.340)	3.000±.428	4.439 (0.013)	2.567±.497	10.397 (<0.001)
	2nd <sup>b</sup>	3.810±.502		3.205±.388		2.597±.561	
	3rd <sup>c</sup>	3.707±.359		3.130±.378		2.912±.625	
School record	very good <sup>a</sup>	3.878±.725	1.517 (0.198)	3.607±.390	12.311 (<0.001)	2.623±.544	1.134 (0.341)
	good <sup>b</sup>	3.776±.424		3.293±.456		2.799±.562	
	moderate <sup>c</sup>	3.713±.402		3.079±.383		2.725±.608	
	bad <sup>d</sup>	3.644±.481		2.877±.293		2.601±.505	
	very bad <sup>e</sup>	3.486±.699		2.824±.399		2.500±.505	
Forms of family	grandparent & parents <sup>a</sup>	3.634±.475	1.937 (0.124)	3.114±.423	1.885 (0.133)	2.587±.482	0.833 (0.477)
	parents <sup>b</sup>	3.702±.438		3.056±.406		2.711±.575	
	single parent <sup>c</sup>	4.000±.576		3.346±.551		2.500±.534	
	others <sup>d</sup>	3.566±.593		2.974±.288		2.787±.770	
Economic status	high <sup>a</sup>	3.846±.475	3.971 (0.020)	3.231±.396	3.659 (0.027)	2.680±.575	1.366 (0.257)
	middle <sup>b</sup>	3.687±.444		3.041±.405		2.711±.578	
	low <sup>c</sup>	3.447±.510		3.006±.489		2.430±.475	
Hoping career	enter university <sup>a</sup>	3.722±.438	5.356 (0.005)	3.083±.408	0.739 (0.479)	2.706±.582	7.166 (0.001)
	get a job <sup>b</sup>	3.782±.529		3.025±.239		2.959±.479	
	don't know <sup>c</sup>	3.371±.507		2.970±.575		2.274±.293	
Peer relationship	good <sup>a</sup>	2.699±.575	2.535 (0.012)	3.066±.411	-0.836 (0.434)	2.699±.575	1.087 (0.278)
	bad <sup>b</sup>	2.460±.528		3.214±.461		2.460±.528	

보다 희망진로에서는 ‘대학진학’과 ‘취업’을 한다는 집단이 ‘모르겠다’는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 3.4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 $r=.407, p<.001$ )가 있었고, 감성지능과 진로결정 수준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 $r=.175, p=.006$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도 약한 양의 상관관계( $r=.297, p<.001$ )를 보여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n=241)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r/p)	Academic Self-Efficacy (r/p)	Career Decision Level(r/p)
Emotional Intelligence	1		
Academic Self-Efficacy	0.411/<.001	1	
Career Decision Level	0.175/.006	0.297/<.001	1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인문계 여고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수준의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3.70점으로 인문계 남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18]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감성지능 3.59점, 남고생 3.50점 보다 높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0]에서의 3.52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부족과 본 연구가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대상자들의 감성지능이 일반 고등학교이나 초등학교보다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정서인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연구결과[12]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성지능에서 남녀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19]와 남학생의 감성지능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20]도 있어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영역에서는 감정표현(3.91점), 자기노력(3.79점), 감정이입(3.79점), 감정인식(3.71점), 자기조절(3.42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10,18]에서 나타난 감정인식(3.73점), 감정표현(3.71 점), 자기노력(3.61 점), 감정이입(3.56 점), 자기조절(3.29 점) 순서와 차이를 보였지만, 여고생은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자신의 감정표현이나 감정인식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확인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07점으로 남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21,22]에서의 3.40점이나 3.64점 보다는 낮았지만, Kim[23]의 연구에서의 3.16점이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4]의 연구에서의 3.22점 보다는 높았다. 하위영역에서는 자신감 3.25점 자기조절 효능감 3.21점, 과제난이도 선호 2.79점 순이었다. 이는 Rho[21]와 Ma[22]의 연구에서의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도 순서로 점수가 높았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지만, Kim[24]의 연구에서 자기조절 3.32점, 과제난이도 3.10점, 자신감 3.24점 순서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선행연구처럼 남녀 혼합 집단이 아닌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일 수 있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등도 이상을 보여 대상자들이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 정도는 2.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Kim[25]의 연구에서의 2.63 보다는 낮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과 Kim[26]의 연구에서 2.34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수준 정도를 살펴 본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논할 수 없지만, 진로결정수준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27]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대상자가 여학생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대학진학 또는 취업 등의 중요한 진로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시

기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여고생의 감성지능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조순가정 청소년의 감성을 대해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가정환경과 감성지능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Shin[2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희망진로를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결정한 집단이 ‘모르겠다’는 집단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논의할 수는 없기에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학년과 성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학년이 1, 3학년보다 학업성적이 매우 좋거나 좋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변수들에 대한 차이를 연구한 논문이 보고된 바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특정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기 때문[28]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이러한 자신감이 학업성취와 연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당장 진로선택을 앞두고 있는 3학년이 1, 2학년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고, 희망진로에서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한다고 진로를 결정한 집단이 ‘모르겠다’는 미결정 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 3학년의 경우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가 비교적 분명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교육수준,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27]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추후 다양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고생의 감성지능 정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의 관계에는 양의 상관관계( $r=.407,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감성지능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비추어볼 때, 선행연구[29]에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순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더불어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30]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측면, 동기수준 뿐만 아니라 진로영역에 대한 결정수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성지능 정도와 진로결정 수준 정도의 관계에는 양의 상관관계( $r=.175, p=.006$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 정도의 관계에는 양의 상관관계( $r=.297,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Choi[19]의 연구와 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기감정인식과 자기감정관리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성취해 나갈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겠다. 즉, 여고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활용하여 원활하게 사고하고, 긍정적인 기분상태를 유지할수록 훨씬 쉽게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고생의 감성지능을 자극함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양의 상관관계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동기적 변인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Kim[3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증진과 관련하여 학업현장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규명함으로써 여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여고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연구수행에 있어 현실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에 국한되어 실시되었기에 향후 연구에는 표집의 한계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을 내면화 시키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im, G.H., Kim, D.I., Kim, B.W., Kim, C.D., Kim, H.S., Nam, S.I., Cheon, S.m. Song, I.S., "School counseling", Hakjisa, 2009.
- [2] Moon, J. E. "The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stress and vocational identity status of high school girl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5.
- [3] Statistics Korea, "2014 Youth Statistics", <http://kostat.go.kr>, 2014. (accessed Feb, 12, 2015)
- [4] Kim, B.H., Kim, B.S., Jeong, C.Y. "Career counseling", Hakjisa, 2005.
- [5] Oh, E.J., Shin, S.M. "Development of career and vocational guidelines for girls career diversific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5.
- [6] Cheong, M.H., Park, S.M., Shin, G.S. "The path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major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5(1), pp. 95-111, 2004.
- [7] Ko, B. S., Kim, Y. H.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4(2), pp. 29-42, 2011.
- [8] Kim, A.Y., Park, I.Y. "Academic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and good at study powered by bing".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9(1), pp. 95-123, 2001.
- [9] Kim, A.Y., Ahn, D.H., Yang, M.H. "Educational Psychology", Bakhaksa, 2015.
- [10] Shin, E.K., Park, Y.S.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1), pp. 5636-564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11] Lee, J.Y., Jee, J.H.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demand and burn-out: focused on tourism employe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4(4), pp. 277-294., 2007.
- [12] Shim, G. H.,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the Classroom Climate and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of the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cheon University, Gangwondo, 2004.
- [13] Choo, Y. M., "The effects of self-esteem enhancement program on adolescents self- esteem, self-efficacy,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5.
- [14] alovey, P., Woolery, A., Mayer, J.D.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tandard intelligence", Emotion, 1(3), pp. 232-242, 2001. DOI: <http://dx.doi.org/10.1037/1528-3542.1.3.232>
- [15] Han, S. S.,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ppearanc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n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cheon University, Gangwondo, 2006.
- [16] Osipow, S.H., Carney, C.G., Winerm, J., Yanico, B., Koschier, M.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 Marthon Consulting & Press, 1980.
- [17] Ko, H.J.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993.
- [18] Lee, H.J.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fitness and self-esteem, emotional quotient, and student achievement

- of male and femal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2011.
- [19] Choi, S. 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nd Effect amo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2007.
- [20] Shin, J.A.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i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2012.
- [21] Rho, W.J. “Study on the Students' School Life Influenced by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Styl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7.
- [22] Kim, S. H., "The Relationships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 Self-Asser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2005.
- [23] Kim, G.H. "The Effects of Academic Self- 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o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2011.
- [24] Kim, Y.H. "Learning Motivations,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Processes after Practice Education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0) pp. 6176-6186,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0.6176>
- [25] Kim, H.E.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8.
- [26] Moon, I.O., Kim, H. S. "The Effect of Career Search Programs 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pp. 393-402,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393>
- [27] Ahn, S.Y., Kim, H.J., Kang, Y.B., Song, M.K.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Youth Living Conditions I: Career Prepar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2.
- [28] Chung, S.K.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2), pp. 7160-7169,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7160>
- [29] Lee, K.H., Song, J.S.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1), pp. 17-25, 201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1.17>
- [30] Kim, S. H., "The Effect of Career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2010.

**강 양 희(Yang-Hee Kang)**

[정회원]



- 1999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건강증진, 여성 및 임산부 건강증진

**오 은 주(Eun-Ju Oh)**

[정회원]



- 2006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다문화, 미혼모, 청소년, 여성 및 임산부 건강증진